

致 辭

불교 문화재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사진영상포교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불교사진협회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18회 회원전 개최와 제7회 청소년사진 공모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진가 불자들은 전국의 사찰문화재를 보존하고 사진을 통하여 불교문화를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시 주제인 산문에 이어 금년에는 불교의 상징인 연꽃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전시회를 갖게 되니 내용면에서도 의미가 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음에 평온을 주고 맑은 마음을 들게 하는 불교사진의 감동은 불자들은 물론 이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깨우치고 등불을 밝히는 지혜의 법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포교현장에서 부단한 자기계발로 카메라를 통해서 불교 교리를 전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데 더욱 정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여러분!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도록을 발간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전시회를 개최하는 여러분은 등불 대신 사진작품을 통하여 봉축행사의 의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뜻깊은 일에 노력을 다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은 사진을 통하여 불교문화 창달에 이바지 되는 긍정적 행보임을 서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7년 5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